

### 3. 경제정책

## 1.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수립

### ○ 「K-반도체 전략」 수립 배경

-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인 반도체 산업은 최근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은 민간 중심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음
  -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산업부 장관-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4.9일), 확대경제장관회의(4.15일)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음

### ○ 「K-반도체 전략」 핵심 내용

« 「K-반도체 전략」 핵심 내용 »

**【 반도체 투자지원 패키지 】**

- 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확대(R&D 최대 40~50% / 시설투자 최대 10~20%)
- ②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

- ① 용인, 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치 용수물량 확보
- ② 정부, 한전에서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 최대 50% 공동분담 지원

**【 전주기 인력 양성 】**

- ①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통해 10년간 1,500명 추가 배출
- ② 반도체 장비 계약학과 5개 신설

**【 기술개발, 특별법 등 지원 】**

- ①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 개발에 1.5조원 이상 투입 추진
- ②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방향 본격 논의

## [첨부 : 반도체산업계 K-반도체 전략 적극 환영문]

**반도체산업계 K-반도체 전략 적극 환영**  
**- 세계·금융·인프라 지원 등으로 기업 투자가속 -**  
**- 대규모 인력양성으로 인력난 해소 기대 -**

- 반도체산업계는 5월 13일(목)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적극 환영한다.
- 우리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시장 세계 1위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주도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45%를 차지하는 등 그간 국가경제의 버팀목으로 큰 역할을 해 왔다.
- 하지만, 최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주요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이 자국내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해 대규모 자원 지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가지게 된 상황이다.
-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4.9일 협회 회장단과 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업계의 대정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빠른 시간내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번 발표된 K-반도체 전략대책이 마련되었고, 업계 건의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며 업계를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 특히, 기업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확대를 위해 세계·금융 지원, 규제합리화, 인프라 지원 뿐 아니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인력양성 지원이 추진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 이에 우리 산업계는 금번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이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기대하고, 이행과정에서 산업계가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1.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계·금융 지원, 규제 합리화, 인프라 지원 등은 기업의 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2. 반도체 분야 대규모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은 업계가 직면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반도체를 둘러싼 전·후방 산업에서의 연대와 협력 확산은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차세대 전력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센서 등 유망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은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5. 반도체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제선은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6. 우리 산업계는 계획된 투자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K-반도체 벨트 구축에 적극 동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1. 5. 13.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 일동

## 2.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1년간 5천여개 기업에 23천여건 기술지원

### 5년간 500억원 투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상용화 본격 지원

-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법에 근거하여 '20.4월 출범한 32개 공공연구기관의 협의체로, 공공연이 보유한 인력·기술·장비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는 연대와 협력 플랫폼임
- 금년에는 탄소산업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등이 5개 기관\*이 신규 참여하여 37개 기관으로 확대 개편되고,
  - \* 탄소산업진흥원, 의류시험연구원, 나노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원
  - 전용 예산사업\*을 신설하여 5년간 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한층 구체적·본격적으로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임.
  -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21년 59억원),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21년 36억원)
  - 또한, 매년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의 기업지원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공연이 좀더 적극적으로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소부장 특화단지 기업지원 강화 연대와 협력 공동선언

- 지난 5월 6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대강당에서 융합혁신지원단 1주년 성과발표회가 개최되었음. 이날 행사에서는 소부장 특화단지 기업지원을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 5개 특화단지 추진단 간 연대와 협력 공동 선언식이 함께 개최되었음.
  - 이는 연구기관 간 연대와 협력으로 특화단지 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협력플랫폼으로서, 특화단지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로써, 특화단지 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기술애로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장비사용료 50% 감면 등 연구기관의 장비활용에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융합혁신지원단 석영철 단장은 "금년에는 특화단지, 으뜸기업, 협력모델 등을 집중 지원하여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